

# 2017년 상반기 지역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 2017. 5. 2.(화) / 부산(청) 기후서비스과 기상주사보 김영남 】

## □ 배경 및 목적

- (배경) 지역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추진과 기후변화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목적) 지역 기후변화 특성에 맞는 기상기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발전 방안 토론을 위한 협의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 □ 협의회 개요

- 행사명 : 2017년 상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 일시/장소 : 2017. 4.26.(수) 10:30~12:00 / 부산(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자(총 28명)
  - 외부 : 정책협의회 위원 등 13명
  - 내부 : 부산지방기상청장 등 15명
- 주요내용
  - 주제발표 : 2017년 주요 지역 기상서비스 과제 소개 및 향후 수행과제 발굴(기후서비스과 최우예 사무관)
  - 지역 기후변화와 기상서비스 발전 방향 정책 토론 및 의견 수렴 등

## □ 행정사항

- 행사 예산집행(위탁용역\_1331-303-210-14\_금액 497,640원)
  - 현수막(30,000원), 오찬(384,000원), 커피 등 다과(83,640원)
- 상시학습 등재(발표자 3시간, 참석자 1시간 30분)

## □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40	10'	■ 개회(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사회 김영남
10:40~11:10	30'	■ 주제발표 - 2017년 주요 지역 기상서비스 과제 소개 및 향후 수행 과제 발굴	부산(청) 기후서비스과 기상사무관 최우예
11:10~11:50	40'	■ 지역기후변화 정책 협의 및 토론	사회 김영남
11:50~12:00	10'	■ 폐회(기념촬영)	
12:00~13:00	60'	오찬 및 참석자 소통	

## □ 정책협의회 의견과 질의응답 요약

- 지자체와 기상청간 업무소통과 협업에 관한 사항
  - (부산대 김유근 교수) 지자체의 기상, 기후정보는 중요하나 지자체↔ 기상청간 업무 영역 차이로 업무내용 이해 부족, 소통을 통한 업무이해와 예산반영을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함. 해양레포트 지원은 10년 후의 중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고, 현시점에서 기초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악취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 (부경대 오재호 교수) 악취관련 연구는 기상학뿐만 아닌 여러 고려할 사항이 많아 단독 수행이 힘들. 국립환경연구원, 지자체 등 기관 간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항임
  - (부산청 최우예 사무관) 지자체와의 악취관련 협업 연구는 기상, 기후적 연관성 등 기상청 전문분야의 기초단계부터 추진 예정임
  - (양산시청 정천모 과장) 양산시는 공장, 주택지역 등 15개 지역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 측정 센서를 운영 중이며, 같은 오염상황에서도 날씨에 따라 악취의 강도가 달라짐. 악취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날씨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면 효과적일 것임. 기상청의 바람자료와 양산시의 악취 발생 자료를 조사, 분석하면 연간 악취 경향 등을 연구하면 상당한 연구 성과가 기대됨.

- (부산대 김유근 교수) 악취 연구는 기상학적 연관성이 아주 높은 분야임. 부산청과 양산시청의 현업 내용이 상호 협력에 대한 관심사항을 맞춰가고 기초단계부터 수행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됨
- (창원시 김달년 과장) 지자체에서는 악취, 미세먼지, 황사 등 시민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음. 지자체와 기상청이 상호간에 정보교류를 통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음
- (부산청 김남욱 청장) 기상청이 근본적으로 악취를 없애는 등의 문제해결을 할 수 없음. 그러나 관측 자료를 베이스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악취확산을 일정부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정도는 가능하리라 판단됨. 단기적인 악취는 기상학적 영향이 좌우하나 중장기적인 기후변화와 계절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부산시 이향숙 주무관)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하더라도 날씨에 따라 악취 민원 빈도가 다름. 악취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바람길 등 기상학적 분석과 연구가 필요함에 동의함. 현재 협업을 통하여 도시 열섬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바람길 연구가 가능한지?
- (부산청 최우예 사무관) 열섬 연구가 바람길 연구의 기초단계 연구임. 열섬 현상을 분석해 부산시의 클루프 사업의 기본 자료를 제공 예정임
- (부경대 오재호 교수) 바람길 사업은 도시개발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시 이향숙 주무관) 부산시도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도시개발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진행 중임

#### ○ 미세먼지 관련

- (창원시 김달년 과장) 창원시의 경우 미세먼지, 황사 등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임. 이에 대한 적절한 연구와 조치가 필요함
- (부산청 김남욱 청장) 미세먼지는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기상청과 환경부 등 어느 한 기관에서 단독으로 책임지고 처리하기에는 업무 영역이 서로 상이하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 (APEC 김형원 실장) 현재 사회적으로 날씨관련 정보는 무상지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적 특성에 맞춰 기상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도 있음
- (상공회의소 김태균 과장)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우선 지방에서 스타트업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현실적임
- (부산대 김유근 교수) 과제중 소상공인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제이므로 기획 단계부터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 기대효과

- 각계 전문가 의견과 정책 토론을 통한 기상기후서비스 발전 방안 모색
- 민·학·관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한 기상기후서비스 개선
- 상호 업무 협조를 통한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참조자료]

□ 참석자 서명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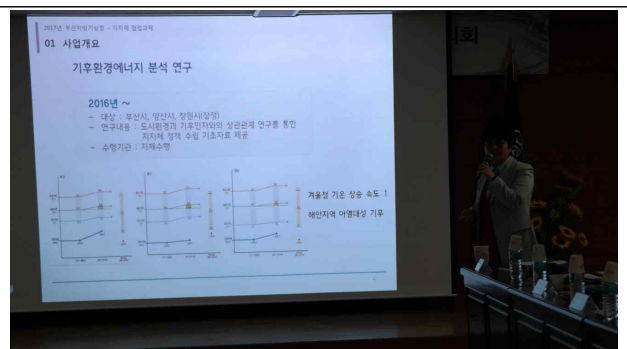
2017년 상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서명록			
【 2017. 4.26.(수) /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			
□ 일시/장소 : 2017. 4.26.(수) 10:30 / 부산(청) 대회의실(3층)			
□ 참석자 명단 : 28 명			
연번	소속	성명	서명
1	부산환경공단 환경변화센터장	송안용	
2	환경에너지융합 부산중심지역본부	김안락	
3	양산시청	정찬모	
4	관동시청	김달호	
5	"	김이섭	
6	여보화장	최주권	
7	부산시 기후대사	이광영	
8	부경대	송재훈	
9	의산대	김수호	
10	부산상공회의소	김혜진	
11	APEC 기후센터	김권민	
12	울산과학기술시청	이영희	
13	울산환경연구원	윤영애	
14	고남도청	배홍희	
15	기후서비스과	이리서	

연번	소속	성명	서명
16	부산지방기상청	리우영	
17	//		
18	/	김유숙	
19	"	이지은	
20	"	김경희	
21	"	황원재	
22	"	김영복	
23	"	김재복	
24	"	이봉재	
25	"	박대나	
26	"	이진희	
27	"	김관우	
28	"	김주영	
29			
30			
31			
32			
33			
34			
35			

□ 행사관련 사진



환영사



주제발표



질의응답



기념촬영